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김동진(평화문화연구원)

북한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시각과 관련해 여러 논쟁을 거쳐 왔다. 과연 남한 연구자가 북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연구의 객관성 문제가 이런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논쟁에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갈등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북한 연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세계 여러 갈등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 가운데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연구들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연구자의 가치가 숨겨진 채로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평화학은 폭력적 갈등 상황에서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한 객관성의 추구는 현재 존재하는 폭력적 가치를 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학은 평화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비판적 연구를 제안한다. 평화학은 연구 대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뿐만 아니

* 이 글은 2013년 9월 27일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좋은 토론을 해주신 송영훈 선생님과 이 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 이 연구 대상에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처한 폭력적 갈등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연구를 위해 평화학은 다양한 학문 방법론을 수용하고, 국제관계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철학, 신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한다. 이 논문은 이런 평화학의 접근 방식이 한반도의 갈등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북한이라는 학문적 연구 대상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포괄적인 평화 구축 전략을 개발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평화학, 북한 연구, 학제 간 연구, 한반도 갈등,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한반도 평화 구축

1. 들어가며

연구 대상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는 인식론과 존재론적 시각, 그리고 연구 이론과 방법론 등 접근 방식의 차이는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북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시기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북한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 논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완규는 “북한만큼 인식의 편차가 크고 객관화되지 못한 연구 대상도 드물다”라고 말한다.¹⁾ 한국 사회에서 북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연구의 시각차, 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 그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 그리고 북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및 제안의 격차 등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이우영·윤철기는 북한 연구는 결

1)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과주: 한울, 2003), 12쪽.

국 분단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²⁾ 지난 60년간의 북한 연구에는 한반도 갈등의 맥락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북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갈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갈등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연구 대상에 대해 주체의 가치판단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가치중립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왔다. 이들 가운데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의 입장에 선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가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의 가치와 권력관계를 사실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가치중립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현실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 비판적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존 질서에 대한 계몽, 비판, 그리고 실천이 담지된 연구를 시도한다.³⁾

이런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의 흐름에서 나온 평화학은 아예 국제관계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주제로 한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한다. 평화학은 평화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인문학, 자연과학, 신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과 방법론을 공유한다. 평화학은 평화와 비폭력을 긍정적 가치로 전제하며, 전쟁과 폭력을 부정적 가치로 전제한다. 이렇게 평화학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관련해 자신이 가진 평화에 대한 가정과 가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폭력적 현상에 대

2) 이우영·윤철기, “북한연구의 성찰과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회의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1쪽.

3) 이들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서울: 후마니타스, 2008) 참조.

한 가치중립적 정당화를 벗어나려 한다. 이에 따라 평화학은 다분히 실천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평화 연구자에게 갈등 맥락 속의 연구 대상은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물론 이런 평화학에 대해 단순히 도덕적인 주장 또는 이상주의 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평화학자들은 의학 연구의 예를 들면서, 인류애, 인간존중 등 인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건강이라는 이상적 목적의 실천을 담지하면서도, 분명 학문적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⁴⁾

또한 의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로서의 평화학은 의학도가 질병과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연구 대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 말은 남한에서의 평화 연구는 결국 한반도 갈등과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갈등 현실에서 북한학이 없는 평화학은 성립할 수가 없다. 또한 평화학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 한반도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평화학 이론과 실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며,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의 과제를 검토한다.

4) David P. Barash, "The Meaning of Peace," in *Introduction to Peace Studies*(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91), pp.12~26.

2. 평화학의 이론과 실천적 연구 동향

평화학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발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The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등 평화연구소의 창설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화연구 저널(the Journal of Peace Research) 및 국제평화연구학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IPRA) 등을 통한 평화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도 평화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에 이르러서 평화학은 점차 스웨덴의 옘살라 대학, 영국의 브래드포드 대학,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 등 연구와 학문 교류를 넘어 학생들을 육성하는 대학 교육의 분과로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⁵⁾

하지만 평화학의 발전은 이런 외형적 측면의 발전보다도, 전쟁과 같은 평화롭지 않은 현상과 평화의 조건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들의 발전과,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전략적 이론과 실천의 조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실천 및 전략적 차원의 평화 이론을 발전시킨 초기 평화학자로는, 전쟁 예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개발한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 평화·갈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평화 구축 전략을 제시한 요한 갈퉁(Johan Galtung), 갈등해결에 심리학과 국제관계학을 접목시킨 인간 욕구 이론을 제안한 존 버턴(John Burton), 상호대화에 기초한 제3자 중재 모델을 개발한 브라이언트 웨지(Bryant Wedge), 갈등진행 분석 및 화해를 위한 비공식적 외

5) Carolyn M. Stephenson, "Peace Studies, Overview," in *The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 2(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9), pp.814~816.

교 모델을 제안한 아담 컬(Adam Curle), 갈등해결의 견지에서 트랙 투(Track II) 외교를 고안하고 발전시킨 요세프 몬트빌(Joseph Montville), 전 지구적 시민사회 문화의 발전상을 제시한 엘리스 볼딩(Elise Boulding),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평화 구축 및 지역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갈등 전환을 주장한 존 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 등을 들 수 있다.⁶⁾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다양한 폭력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들 평화학자들이 발전시켜온 평화 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은 유엔, 비정부기구, 각국 공여기구, 종교기관 및 갈등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과 전략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 활동은 역으로 다시금 평화학에 다양한 비판적 연구 과제를 제공해주고 있다.

1) 평화 개념의 확장: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평화학은 구체적 연구의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맥락 속에서 평화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평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연구로는 직접적(direct) 폭력, 구조적(structural) 폭력, 문화적(cultural) 폭력에 따른 ‘소극적 평화(negative

6) 이들 학자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Ronald J. Fisher, *Interactive Conflict Resolution*(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Diana Francis, *People, Peace and Power: Conflict Transformation in Action*(London: Pluto Press, 2002); John Paul Lederach, *Preparing for Peace: Conflict Transformation Across Cultures*(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6); Hugh Miall, Oliver Ramsbothan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transformation of deadly conflict*(Cambridge, UK: Polity Press, 1999); Alan C. Tidwell, *Conflict Resolved? A Critical Assessment of Conflict Resolution*(London: Pinter, 1998); Gregory Tillett, *Resolving Conflict: A Practical Approach*(Oxford University Press, 1999) 등 참조.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구분을 들 수 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갈통은 이러한 구분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분석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⁷⁾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의 반대말로 갈등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갈등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갈등의 부재를 평화로 본다면 평화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갈통은 갈등 자체가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풀기가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양립할 수 없는 목표(incompatible goals)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결 방법이 반드시 폭력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갈등은 때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통에게 평화는 갈등의 발생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즉 폭력의 부재라고 정의된다.⁸⁾

이렇게 갈통과 같이 평화가 폭력의 부재라는 정의를 갖게 되면 평화의 가치와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폭력을 탐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갈통은 폭력을 “인간의 현실 속 육체적·정신적 목표 실현

7)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in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5), p.109.

8)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London: Pluto, 2002), pp.3~5.

이 그 잠재적 실현 가능성에 비해 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정의한다.⁹⁾ 다시 말해 폭력은 갈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발생했을 때, 한 갈등 집단이 다른 갈등 집단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목표 실현, 즉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강제로 제한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욕구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은 보이는 강제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강제력에 의해서도 제한을 당한다. 갈등은 이를 직접적 폭력(보이는 폭력)과 구조적·문화적 폭력(안 보이는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구분 짓는다. 먼저 직접적 폭력이란 인간의 목표 실현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이란 말은 육체적·언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말이다. 이는 명백하게 가시적이고, 개별적이며, 비구조적이다. 이에 반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은 특정 집단 혹은 계급이 자원과 시야를 독점함으로써 다른 인간 욕구의 목표 실현을 제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은 가난, 굶주림, 독재, 사회적 소외, 불공평한 삶의 기회, 불공평한 자원 분배, 불공평한 결정권 등, 보이지 않는 구조적 압력을 말한다. 또한 문화적 폭력은 상징 혹은 사건과 같은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같은 상징이나 사건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장벽을 만들어내며,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¹⁰⁾

이러한 폭력 탐구에 근거해 갈등은 단순히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

9)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pp.109~110.

10) *Ibid.*, pp.111~130;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i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Oslo/London: PRIO/Sage Publication, 1996), pp.196~210; Ho-Won Jeong, "Concepts of Peace and Violence,"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An Introduction*(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1999), pp.19~30.

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정의한다. 갈통에게 이러한 소극적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볼 수 없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폭력은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갈통은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의 조건을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 즉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즉 적극적 평화의 조건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평화학이 직접적 폭력을 억누르는 소극적 평화의 조건만을 연구한다면, 이는 기존 국제관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힘의 균형과 같은 안보 담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의 개념들 속에서 평화 연구는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특정 계층에 의한 소극적 평화 유지 노력을 비판하고 적극적 평화의 조건을 제시한다.¹¹⁾ 이에 대해 구갑우는 “갈통에 이르러 평화 개념은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지배계급과 그들의 융합으로 구성된 지배체제 또는 역사적 블록(bloc)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¹²⁾

이렇게 갈통이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라는 개념들을 제안한 이후, 평화학에서 논의하는 평화는 군사력 중심의 질서 유지 및 안보 부산물로서의 평화를 넘어 전 지구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인권, 그리고 사회정의가 존중되는 평화로운 인간 사회의 조건을 연구하는 좀 더 포괄적 연구로 발전해나갔다. 다시 말해 적극적 평화는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에서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공존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11) Johan Galtung, “Violence and Peace,” in Smoker, P., Davies, R. and Munske, B. (eds), *A Reader in Peace Studies*(London: Pergamon Press, 1990), p.14.

12)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90쪽.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인간 사회의 조건에 대한 평화학적 기초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의 경제와 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등에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적극적인 평화지수(Positive Peace Index)를 측정 제공하려는 노력도 있다. 2013년 현재 조사되고 있는 적극적 평화지수의 지표로는 ‘정부의 기능’, ‘비즈니스 환경’, ‘자원 분배’, ‘타인의 권리 존중’, ‘이웃과의 관계’, ‘정보의 유통’, ‘인적 자산의 수준’, ‘부패의 정도’가 있다.¹³⁾

물론 이렇게 평화학을 통해 평화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그렇다면 평화 연구가 전 지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잡종 학문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화학자들은 평화학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군사력 중심의 안보의 부산물로 보고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주류 안보 담론에 대한 성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물론 평화학은 주류 안보 담론과 달리 미시적인 쟁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광범위한 체계나 구조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지닌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평화학자들에게 평화학은 모든 것을 연구하는 잡학이 아니라 평화롭지 않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평화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류 안보 담론에 비해 상당히 집중도가 높은 학문이다.¹⁵⁾ 레더라크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무장 소년 갱 문제를 들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만일 쟁점의 수준에서만 이 문제를 본다면 소년들에게 어떤 방

13)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Positive Peace Index 참조.

14)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8쪽.

15) Lisa Schirch, *The Little Book of Strategic Peacebuilding: A vision and framework for peace with justice*(Good Books, 2004), p.68.

식으로는 충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의 수준에서 볼 때, 이 소년들이 무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원인과 무기의 가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특히 모가디슈에서 충기 휴대는 자신과 가족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무력을 통한 자원 확보와 판매 등과 같이 돈을 버는 직업의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권위 있는 직종처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 쟁점은 군축, 군비 통제, 국가 안보, 지역 안보 등 국제관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국내 문제,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개인의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¹⁶⁾

따라서 이렇게 미시적 쟁점과 구조의 문제를 함께 다루려는 평화학적 입장에서 평화의 쟁점은 국제정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다루는 모든 학문들이 함께 탐구해야 할 과제가 된다. 바라시(Barash)는 핵무기 개발을 예로 들면서 평화학에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핵 개발은 단순히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 등 한 분과만의 학문적 연구 과제일 수 없다. 이들 학문 모두에게 연관된 과제이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 폭넓은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¹⁷⁾

16) 레더라크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시적 쟁점과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연구할 때, 충기를 포기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고용,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지역을 위한 군축, 군비 통제 프로젝트 등과 같은 통합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존 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하여』, 김동진 옮김 (서울:후마니타스, 2012), 96~98쪽.

17) D. P. Barash, "The Meaning of Peace," p.27.

2) 평화학 이론의 발전: 갈등 이론과 평화 구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의 개념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평화학자들은 갈등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평화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실천적 이론을 포괄하는 용어로 ‘평화 구축(peacebuilding)’을 들 수 있다. 평화 구축은 1970년대 갈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는 국제사회의 평화 조성(peacemaking) 및 평화 유지(peacekeeping) 행위를 바라보면서, 제삼자의 개입을 통한 평화 조성 및 평화 유지는 소극적 평화를 낳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인 평화는 구조적 폭력을 그 매개로 삼는 경향이 나타난다.¹⁸⁾ 소극적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직접적 폭력은 억누를 수 있어도 갈등 집단 간 교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적극적 평화의 경우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나가면서 갈등 집단 간 자발적인 교류 협력 및 통합이 가능해진다.¹⁹⁾ 따라서 갈등은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직접적 폭력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폭력 구조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 평화 구조의 구축으로서 평화 구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²⁰⁾

18) Johan Galtung,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 (Copenhagen: Christian Ejlertsen, 1976), pp.297~298.

19) Johan Galtung, “Peace,” in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Copenhagen: Christian Ejlertsen, 1975), p.29.

20) Johan Galtung,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pp.298~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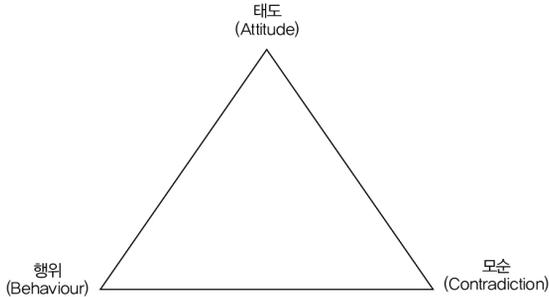
이런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갈등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를 해결하려는(갈등해결, conflict resolution) 입장의 평화학 이론과 이를 전 환시키려는(갈등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 입장의 이론이 나타났다. 먼저 갈등해결 이론이란 갈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이다. 가장 대표 적 갈등해결 학자인 버턴은 위 갈등의 경우에서처럼 폭력의 발생을 인간의 욕구와 연결시킨다. 특히 심리학적인 배경을 가진 버턴은 갈등 의 근원을, 집단 의식과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그 안에서 타인들과 합법 적이고 가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존재론적 욕구에서 찾으 려 한다.²¹⁾ 만일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사회규범 속에서 충족될 수 없으면 이는 일탈 행위를 부르고 이러한 일탈 행위는 갈등과 폭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턴은 갈등 집단 분석을 통해 그 집단의 기본 욕구, 가치, 이익, 두려움 등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집단의 기본적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장기화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²²⁾ 이러한 버턴의 이론 은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사회적 구조 및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 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버턴에게 갈등해결이란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control) 행위이다.²³⁾

21) Ronald J. Fisher, “John Burton: Controlled Communication to Analytic Problem Solving,” in *Interactive Conflict Resolution*, p.31.

22) John W. Burton, “Human Needs Theory,” in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London: Macmillan, 1990), pp.36~37.

23) *Ibid.*, pp.47~48.

<그림 1> 갈등의 ABC 삼각형



자료: 요한 갈통(Johan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옮김(서울: 들녘, 2000),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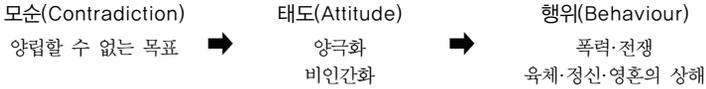
버턴을 비롯한 갈등해결 학자들에 반해 갈등전환 학자들은 갈등이 때로는 집단 간 더 발전된 관계를 구축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갈등전환 이론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생한 갈등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²⁴⁾ 대표적 갈등전환론자인 갈통은 갈등해결은 임시 목적이고 방편이지만, 갈등전환은 갈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²⁵⁾ 이에 대해 갈통은 <그림 1>과 같은 삼각형 구조를 들어 설명한다.

갈통의 주장에 따르면, 갈등은 위와 같이 양극화, 비인간화, 타자화 등 서로를 향한 ‘태도’, 육체나, 정신 혹은 영혼의 상해를 불러오는 직접적 폭력이나 전쟁 같은 ‘행위’,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는

24) John Paul Lederach, *Preparing for peace*, pp.16~17.

25) 요한 갈통(Johan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옮김(서울: 들녘, 2000), 204쪽.

<그림 2> 갈등의 흐름



자료: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London: Pluto, 2002), p.4에서 재구성.

‘모순’으로 구성된 삼각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어떤 한 각에만 치중해 해결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런 갈등 삼각형의 각은 명시적 수준, 즉 경험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의식적인 수준과 더불어 잠재적 수준, 즉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의식 이하의 수준을 갖는다. 다시 말해 어떤 갈등 상황에서 ‘태도’가 명시적인 수준이라면, ‘행위’와 ‘모순’은 갈등의 잠재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명시적 태도에만 집중하는 갈등해결은 행위와 모순의 잠재성으로 인해 실패의 위험성이 높다.²⁶⁾ 또한 이런 갈등의 삼각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림 2>와 같은 순환적 흐름을 갖는다.

<그림 2>의 갈등의 흐름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모순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면, 양극화, 비인간화 등 태도로서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더 많은 공격성을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이후 폭력이 폭력을 낳는 파괴적 폭력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삼각형은 다시 상승작용을 시작한다. 갈등은 이를 불길히 집을 태운 후 꺼지는 것으로 비유한다. 그러나 잠시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모순으로 연결되며, 시간이 지나 다시금 폭력적

26) 위의 책, 167~168쪽.

갈등 흐름의 경로를 밝게 된다.²⁷⁾ 따라서 갈등은 어떻게 하면 갈등의 폭력적 경로가 평화의 경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면서, 갈등 속에서 부정적 경험과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과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축적할 수 있는 통합적 관계 구축 구조를 제안했다. 갈등은 태도에는 공감(Empathy)으로, 폭력에는 비폭력(Non-violence)로, 그리고 모순에는 창의력(Creativity)으로 대응하는 통합적 관계 구축의 구조 속에서 갈등의 긍정적 성격 변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변화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창의력을 통한 창의적 방안 제시이다. 비폭력은 폭력의 수준을 낮추며, 또 다른 폭력 발생을 예방한다. 공감은 각각의 갈등 집단이 갖는 서로의 이익과 욕구에 대한 이해와 의식화를 도우며 갈등의 창의적 해결을 위한 기초를 놓는다. 그리고 창의력은 줄다리기와 같은 승/패(win/lose)의 경우의 수를 넘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갈등의 비폭력적 전환을 담보한다.²⁸⁾

갈등전환 이론의 흐름에서 갈등의 연구가 갈등 속의 ‘모순’을 초월(transcend)하기 위한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처방전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면,²⁹⁾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 가운데 심각한 양극화라는 ‘태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하는 레더라크의 평화 이론도 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갈등전환 이론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레더라크는 양극화가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주관적 인식과 감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당

27) 위의 책, 169쪽.

28) Johan Galtung,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p.21.

29) *Ibid.*, pp.173~305.

국 간 협상에서 주를 이루는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이 갈등해결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평화는 “반드시 사람들의 인식과 필요를 형성하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실재에 응답하고 또한 이에 근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레더라크의 이론적 접근은 이슈 혹은 문제들의 해결 및 해소보다는, 경험적이고 주관적 실재에 근거하며 이에 응답할 수 있는 평화학의 도덕적 상상력을 강조한다.³⁰⁾

레더라크는 사회학자 밀스(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 개념을 활용하면서, 평화학적 접근에서는 내 삶의 질이 궁극적으로 타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식, 나의 자손의 번영은 타인의 자손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의식의 공간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이 잉태된다고 말한다.³¹⁾ 레더라크는 만일 갈등 지역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진화하는 관계 구축의 그물 속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창의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의 구조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 구축 그물에 대한 상상력은 인간의 이타성에 기반을 둔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다. 때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이기적 성향을 제한하는 이타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가치와 규범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때 이러한 가치와 규범은 집단 내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그러나 레더라크

30)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8), pp.23~24.

31) 사회학적 상상력과 관련해서는,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참조.

의 평화학적 접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상상력은 집단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던 이타성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의 적용을 관계 구축에 대한 상상을 통해 갈등 대상 집단까지 확장시킨다.³²⁾

한편 1990년대부터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하고, 평화학 이론을 적용한 평화 구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들 갈등해결 이론과 갈등전환 이론은 평화 구축 이론의 하위어로 함께 사용되거나, 아니면 아예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가 제안된 이후 갈등해결이나 전환 이론 연구가 특정 갈등 또는 쟁점에 대한 분석틀 또는 중재, 협상, 화해 이론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포괄적·통합적 또는 전략적 의미의 평화 구축은 이들 갈등해결 및 전환 이론과 더불어 갈등 집단의 관계와 갈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영역의 구체적 활동과 과정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의미하게 되었다.³³⁾

3) 평화학 이론의 적용과 실천적 성찰

평화학 이론 및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된 계기는 1992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가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를 통해 평화 구축을 언급하면서부터였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 개입의 영향 속에 맺어진 평화조약들의 이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트로스-갈리는 평화 구축에

32) John Paul Lederach,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29~35.

33) Craig Zelizer and Valerie Oliphant, “Introduction to Integrated Peacebuilding,” in Craig Zelizer(ed.), *Integrated Peacebuilding: 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ing Conflict*(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13) 참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갈등 이후 평화 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은 다시금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화를 강화하고 견고히 할 수 있는 구조들(Structures)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행위이다. …(중략)… 갈등을 멈추게 하고 이룩된 평화를 보존하는 데 있어 평화 조성과 평화 유지가 요구된다. 만일 이러한 행위들이 성공적이라면, 국가들과 민족들 간의 폭력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갈등 이후 평화 구축의 가능성이 증진된다.³⁴⁾

위와 같이 부트로스-갈리는 갈등 지역에서 소극적 평화의 조성 and 유지 for 위한 안전보장 분야 및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폭력 발생 원인을 함께 다루는 적극적 평화 구축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유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공여기구 및 비정부기구들도 평화 구축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다.³⁵⁾

부트로스-갈리의 뒤를 이은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2001년 이런 제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유엔의 포괄적인 평화 구축

34)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A/47/277-S/24111. 17 June 1992," in *Agenda for Peace*(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5), p.46.

35) 이들 활동을 잘 정리해놓은 문서로는 Catriona Gourlay, *EU-UN Cooperation in Peacebuilding: Partners in Practice?*(New York: United Nations, 2009); Necla Tschirgi, *Peacebuilding as the Link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Is the Window of Opportunity Closing?*(New York: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003); OECD,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s Series*(OECD Publishing, 2012) 참조.

활동 영역으로 굿 거버넌스, 민주화, 인권, 정의와 화해, 인도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했다.³⁶⁾ 이후 2005년 자신의 보고서 “더 큰 자유를(In Larger Freedom)”에서는 이를 위해 유엔에 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³⁷⁾ 이런 평화구축위원회의 창설은 갈등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유엔의 주요 평화 활동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⁸⁾ 평화구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의 지역 팀들, 국제비정부기구, 지역 시민사회, 민간(사적) 영역과도 포괄적으로 협조한다.³⁹⁾

이렇게 국제사회의 평화 구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평화학자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자신의 연구 과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연구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략적(또는 포괄적·통합적) 평화 구축 연구를 들 수 있다.⁴⁰⁾ 전략적 평화 구축

36) UN Document S/2001/138, 14 February 2001.

37) Kofi A. Annan, *in larger freedom: Towar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New York: United Nations, 2005), p.41.

38) 평화구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Organizing Committee (OG), Peacebuilding Support Office(PBSO), Peacebuilding Fund(PBF), Country Specific Meetings(CSMs), Working Group on Lessons Learned(WGLL).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Christian Bueger, “The clash of practice: political controversy and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The Policy Press* (2011) 참조.

39)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는, Thania Paffenholz and Christoph Spurk, “Civil Society, Civic Engagement, and Peacebuilding,” *Social Development Papers, Conflict Prevention & Reconstruction*, The World Bank Paper No. 36(2006) 참조.

40) 이들 학자들의 연구는 Daniel Philpott and Gerard F. Powers(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raig Zelizler(ed.), *Integrated Peacebuilding: 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ing Conflict*

은 부트로스-갈리의 제안과 같은 평화 조성, 평화 유지, 평화 구축과 같은 시계열적 구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활동의 동시다발성에 주목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평화 구축이라는 이름 아래 평화협정, 대화, 중재, 멀티 트랙 외교(Multi-Track Diplomacy), 민주화, 정치 개혁, 선거 감시, 법질서 및 인권 존중 확산, 이행적(전환적) 정의 및 화해, 난민 구호, 사회 통합, 군축, 군비 통제, 지역 안보 협력,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및 재건, 갈등전환(해결) 워크숍, 평화 교육,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⁴¹⁾ 평화학자들은 이들 활동이 가진 포괄적 과제를 대체로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한다. 그 첫째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치안과 질서를 회복하며 외부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맺고 지역 안보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과 같은 안보 구축 과제, 즉 직접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과제이다. 둘째는 민주주의, 인권, 경제 발전과 같은 정치·경제 차원의 국가 구축 과제, 즉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국민 구축 과제, 즉 관계 구축의 과제이다.⁴²⁾

전략적 평화 구축 학자들은 이런 평화 구축 과제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진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다루어져야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동시다발적 평화 활동들이 포괄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각 활동의 과제를 좀 더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상호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⁴³⁾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13) 참조.

41) Lisa Schirch, *The Little Book of Strategic Peacebuilding*, p.10.

42) Peter Wallensteen, "Strategic Peacebuilding: Concepts and Challenges," in Daniel Philpott and Gerard F. Powers(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Lisa Schirch, *The Little Book of Strategic Peacebuilding*, p.26.

다시 말해 평화 구축 활동은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전략적 과정이며 동시에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더라크는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평화 구축의 격차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⁴⁴⁾

그 첫 번째 격차는 ‘상호 의존성의 격차(interdependence gap)’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 구축은 한 특정 집단의 역할 혹은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계층들의 다양한 행위와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⁴⁵⁾ 그러나 일반적으로 갈등 집단 간 평화 구축은 정치·군사 지도자와 같은 고위층의 역할 및 행위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위층이 아닌 일반 시민 간의 평화 구축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고위층의 평화 구축 행위와 전혀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화 구축은 갈등 집단 간 수평적 차원의 관계와 수직적 차원의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 구축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평화 구축에는 ‘정의의 격차(justice gap)’가 나타날 수 있다. 정의의 격차는 평화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주어진 평화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평화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갈등 집단 간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근원이 제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 폭력이 감소하더라도 사회의 정의에 대한 기대는 쉽게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화 구축에 직접적 폭력 제거 과정은 사회정의 구축 과정과 동시

43) *Ibid.*

44) John Paul Lederach, “Justpeace,” in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People Building Peace*(Utrecht: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1999), pp.32~35.

45) *Ibid.* p.30.

에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구축 속 ‘과정-구조의 격차 (process-structure gap)’가 나타날 수 있다. 레더라크는 일반적으로 평화란 협정 혹은 합의의 순간까지는 과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구조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평화는 과정 혹은 구조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평화 구축은 협약 혹은 합의라는 시점 혹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 협약 과제 이행의 기능을 넘어 실제 삶의 필요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끊임없는 관계 구축 과정·구조가 되어야 한다.⁴⁶⁾

3.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 가능성 모색

1) 북한, 평화학적 연구 대상?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의 경험으로 인한 이분법과 양극화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⁷⁾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 정부는 모두 소극적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갔다. 이에 따라 냉전 시기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구조적 폭력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문화적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갈통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46) *Ibid.* pp.32~35.

47)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2011), 4쪽.

평화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매개로 유지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한 민족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불신과 타도의 비인간적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최완규는 심지어 학문적 연구에서도 “북한을 국가 안보 우선주의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말한다.⁴⁸⁾ 강성윤도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생존을 위한 안보의 필요성과 분단의 극복이란 민족사적 요구”로 인해 그 시작부터 타 지역 연구와는 다른 당위적 성격이 있었다고 말한다. 연구의 대상을 지칭하는 ‘북한’이라는 표현 자체에도 이미 ‘분단’이라는 한반도 갈등의 현실이 전제되어 있으며, 분단이라는 용어는 ‘통일’을 전제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북한 연구의 활성화도 초기에는 학문적 동기라기보다는 통일 정책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의 성격이 컸다는 것이다.⁴⁹⁾ 이는 학문적 연구에서도 갈등이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국가 안보 우선주의적 인식을 공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한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자 이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점차 이런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냉전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냉전적 대북관을 넘어 북한을 공존·공영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남한의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단을 극복하기

48)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33쪽.

49) 강성윤, “북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과주: 한울 1999), 15쪽.

위한 평화통일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도 사회에서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⁵⁰⁾ 그러나 남한 사회가 민주화 되고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북한에 대한 사회 내부의 논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지역 정서와 맞물려 점차 남한 내부의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⁵¹⁾

한편 북한 연구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외재적·내재적(비판적) 접근 논쟁 등과 같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는 한반도 갈등의 맥락 속에 있는 남한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냉전적 선형성을 넘어, 좀 더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심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곧바로 외재적·내재적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 인식론과 방법론의 구분에 대한 논쟁, 이해와 평가의 구분에 대한 논쟁, 북한 특수성과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대한 논쟁 등을 불러일으켰다.⁵²⁾ 특히 이들 논쟁은 남한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맞물려 연구 시각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한반도 갈등

50)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노중선,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996) 참조.

51) 남한 내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서의 정부 대북 정책의 국민 개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로는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2013) 참조.

52) 1980년대 말부터의 북한에 대한 접근 논쟁을 잘 정리해놓은 글로는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파주: 한울 1999);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연철, “인식방법: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파주: 한울, 2007);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2008) 등 참조.

의 맥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갈등의 맥락에 익숙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상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오히려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또 다른 왜곡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연구로 비치기 쉬웠다. 실제로 몇몇 연구는 이러한 오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가치중립적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냉전적 대북관에 입각한 연구에 대항하는 반냉전적·가치 편향적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겨났다.⁵³⁾ 이런 측면에서, 박형중은 이 논쟁은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쁨이라는 해석과 평가를 대상에 대한 연구 분석, 이론화, 개념화와 혼동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의 발견과 그에 대한 묘사 및 설명에 집중”하는 과학적 연구만이 가치와 평가, 또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⁴⁾

그러나 남한 사회의 연구자가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 과연 가치와 평가, 또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연철은 북한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반드시 가치중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연구의 논증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되고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에 앞서 어떤 것이 중요한 변수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⁵⁾ 최완

53) 정창현, “분단과 북(조선)을 보는 시각: 체제와 민족문제의 사이에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분단 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서울: 선인, 2009), 43쪽;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의 회고와 전망,”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서울: 철학과현실사, 2010), 28쪽.

54)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56쪽.

55) 김연철, “인식방법: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20~25쪽.

규는 “남북한의 정치 상황을 둘러싼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양극성과 인지적 왜곡 때문에 북한 연구에 가치중립적 접근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사무엘 김(Samuel S. Kim)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가치중립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현상과 그 의미가 사회의 행위자와 분리가 가능하다는 존재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가치에서 자유롭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경험적으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연구에서도 가치중립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갈등이라는 현상의 폭력적 가치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영속화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⁵⁶⁾ 결국 최완규는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연구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시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⁵⁷⁾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가능성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학은 기존의 가치중립적 연구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 가치를 정당화했음을 비판하면서, 연구자가 가진 평화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⁵⁸⁾ 더불어 평화학은 자신의 연구가 미칠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6) 최완규가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 김(Samuel S. Kim)의 글은 Samuel S. Kim,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ersus Performance,” *World Politics*, Vol. XXXII, No. 2(Jan, 1980)이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14쪽.

57)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39쪽.

58) Carolyn M. Stephenson, “Peace Studies, Overview,” pp.810~811.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실천적 연구이다. 평화학은 의학자들이 건강을 옹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병 치료 연구에 매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평화 구축 연구에 매진한다.⁵⁹⁾ 이런 평화학의 입장에서 남한 연구자와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은 한반도 갈등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며,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문제는 중세 기독교적 질서를 비판했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 평화론도 결국 새로운 부르주아 사상의 윤리적 정당화, 즉 부의 극대화에 복무하는 또 다른 질서로 작동했다는 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폭력적 질서를 정당화하지 않는 연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치중립적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자신이 지닌 가치를 배제하려는 노력 없이 대상을 연구할 때 나타나는 왜곡 현상의 위험성도 북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관계 연구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⁶⁰⁾ 이러한 측면에서 최완규의 지적과 같이 평화 연구자도 북한 연구에서 계속 자신의 평화적 시각을 점검하며 성찰해야만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평화학이 연구자와 이론화 대상 사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학적 인식론을 가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더 나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적 명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적·최종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해석관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와도 다르다.⁶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학은 전쟁의

59) David P. Barash, "The Meaning of Peace," p.26.

60)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39쪽.

61) 비판적인 해석학적 인식론과 관련해서는 위의 책, 111쪽.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관을 넘어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의 개념들 속에서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면서 기존 학문뿐만 아니라, 평화학적 접근 자체에도 계속해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평화학은 그 학문의 성격상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가진 평화 가치와 시각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성립되는 학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평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석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비판을 들을 만큼 어떤 것이 한반도에서의 적극적 평화인가에 대한 해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⁶²⁾

정리하자면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한반도 갈등 속 북한 연구의 이념 편향성을 가치중립적 연구로 극복하려는 시도와 달리,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가치 편향성을 지닌 연구를 통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모색하는 실천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같이 완결된 최종 지식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폭력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해석학적 인식을 위한 개념들이다. 북한을 연구하는 평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의학자가 자신의 연구가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듯, 평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한반도 갈등에 미칠 실천적 영향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62)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8쪽.

2) 남북관계와 평화학 이론

이렇게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가 비판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적극적 평화의 가치와 해석관을 지닌다고 할 때, 한반도 갈등의 맥락에서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정해 온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 및 관점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세계에서 주권국가를 그 기본단위로 본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현실주의는 이기적 국가가 언제나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언제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폭력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 결국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 안보와 국가의 생존이며, 국제관계의 평화란 힘의 균형을 통한 소극적 평화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⁶³⁾ 황지환은 북한 연구에서 이런 현실주의의 입장을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방어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북한은 공격보다는 방어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힘의 균형이라는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볼 때, 북한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를 추구하며 남한에 비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생존을 보장받으려 한다. 만일 남한보다 힘이 약해

63) Robert Jackson and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68;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4.

지면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팽창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 등 군사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결국 남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북한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 안보가 중요하다.⁶⁴⁾

한편 현실주의에 비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유주의는 국가가 때로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이익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언제나 갈등관계일 필요는 없다. 특히 한번 국가 간 협력이 시작되면 국내의 이익집단들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협력 관계에서의 배신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 및 제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⁶⁵⁾ 황지환은 이런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남북관계 인식을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제도주의 협력 이론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먼저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경제 부분에서 시작해 정치적 수준의 통합에 이른 유럽의 경험에서처럼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협력을 견인할 수 있다. 일단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되면 남한과 북한의 국내 이익집단들이 국가 이익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국가를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남북협력의 동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도 결국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64)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14쪽.

65) Robert Jackson and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pp.105~107;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p.5.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경우에서처럼 분명 상호 이익이 기대되면서도, 서로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협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제도와 상호주의가 중요하다. 즉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으로 배신에 대해서는 처벌과 배신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 남한은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협력의 이익과 배신의 불이익이 커지도록 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강한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다.⁶⁶⁾

최근 이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 또는 집단의 고정된 이익 관점을 넘어 남북관계를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구성주의적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구성주의는 국제정치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면서, 국가를 주 행위자로 보는 이론에 비해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방점을 둔다. 또한 행위자에게 이미 주어진 고정된 정체성과 이익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⁶⁷⁾ 이런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은 분단·전쟁·냉전 이전에 지녔던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적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공존의 대상이라는 정체성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남북의 이익관계에 대해 현실주의적·자유주의적 해석을 모두 포괄하는 메타 이론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구갑우도 지적하듯 무비판적 구성주의는 결국 정체성의 변화

66)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6~17쪽.

67)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p.6.

이후의 현실을 정당화하면서 언제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한 편으로 귀결되고 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⁶⁸⁾ 남북관계에서도, 분단과 전쟁으로 시작된 남북 간의 적 정체성은 냉전 시기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정부의 냉전 이데올로기 정치를 통해 한민족, 가족, 이웃, 친구 등 다른 정체성을 압도했으며, 이렇게 강화된 적 정체성은 심지어 냉전의 종식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냉전 이데올로기 정치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⁶⁹⁾ 이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무비판적 구성주의의 관점과 정책은 결국 현실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화학은 남북관계의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정체성과 관련된 현상의 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창의력, 비폭력, 공감 및 도덕적 상상력으로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⁷⁰⁾ 먼저 현실주의적 관점과의 차이에서 평화학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는 직접적 폭력만을 억누르는 소극적 평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제거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의 구축을 모색한다. 이런 평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현실주의적 해석에서처럼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폭력의 위협에 맞서 방어 또는 공격의 목적으로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 갈등과 분단체제로 인해, 지속적 경제난, 식량난, 인권 문제 등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안고 있

68)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남북한관계론』(과주: 한울, 2005), 99쪽.
69) Samuel S. Kim,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3.
70)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439쪽.

는 존재이다. 그리고 한반도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남한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해석에서와 같이 남한의 강한 군사 안보를 통해 직접적 폭력을 억누르는 소극적 평화는 오히려 이런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화학의 관점에서 한반도 갈등은 남한, 미국, 일본 한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른 한편을 이루는 단순한 이분법 또는 양극화의 줄다리기가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 갈등의 행위지는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배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국가 내부에는 서로 다른 갈등 집단 또는 이익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이익과 욕구, 가치, 두려움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처럼 강한 군사력만을 가지고 북한의 직접적 폭력만을 억누르려 할 때, 다시 전쟁을 치루지 않는 한, 심지어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한반도 갈등의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평화학적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한반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이런 창의적 방안을 통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북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 관련 국가의 관계 변화, 그리고 그 내부의 다양한 집단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관계 변화를 추구한다.⁷¹⁾

이렇게 한반도 갈등의 창의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평화학은 공동

7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163쪽.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주로 경제적 이익 중심의 기능적 접근, 배신을 막기 위한 강한 경제력과 제도적 접근을 추구하는 반면, 평화학적 접근에서는 남북 주민의 다양한 기본적 욕구가 실현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평화 구축 과정·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한반도 사회에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을 유발하면서, 오히려 적극적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런 구조적 폭력이 계속되고 집단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소극적 평화마저 위협당할 수 있다.⁷²⁾ 결국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는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또는 특정 경제적 이익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안전, 삶의 질, 생명과 환경 가치의 신장,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확장, 일자리 확대 등 한반도 시민사회의 공공 가치에 대한 쟁점을 지닌다. 이렇게 서로의 기본적 욕구가 존중되는 가운데 비로소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적에서 이웃 또는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시민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변화를 보장하는 과정·구조의 구축은 강한 경제력이나 제도의 구축보다 남북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⁷³⁾

72) 사회경제적 전환기(계급 갈등), 정치적 전환기(정체성 갈등), 문화적 전환기(세계관 갈등)에는 갈등이 폭력적 행위로 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원인으로 거(Gurr)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든다. 상대적 박탈감은 특히 전환기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과의 차이(discrepancy)에서 발생한다. 그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력(collective violence)의 잠재성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참조.

한편, 평화학이 국가 또는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 가치, 규범, 정체성에 관심한다는 차원에서 구성주의적 접근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구성주의는 다양한 정체성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 갈등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⁷⁴⁾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성주의적 접근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해석 이후, 결국 국가 중심적인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달리, 평화학은 미시적 쟁점과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놓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평화학은 공감과 도덕적 상상력을 끌어온다.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양극화와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에 대한 적 정체성이 강화된 상황이라도, 내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타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내 자손의 번영은 타인의 자손의 번영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새로운 의식의 공간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윤대규는 남북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 운명인 것은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세계사적 관점에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다.⁷⁵⁾ 김창근은 이런 공동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일학적 상상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는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 통일 문제를 사회 전체의 질서와 변화 속에서 자신과

73) 조대엽,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2010), 175쪽.

74) Martha Finnemore, “Paradoxe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Richard M. Price(ed.), *Moral Limit and Possibil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218.

75) 윤대규,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주: 한울, 2013), 134쪽.

우리의 삶 전체와 건강하게 연결 지어 인식하는 통일학적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건강한 통일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한다.⁷⁶⁾

결국 평화학의 관점에서,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사 안보에 기반을 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남북의 협력과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적극적 평화는 자유주의와 같이 더 강한 경제력이나 제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서로의 타자적 또는 적 정체성이 남과 북 사람들의 공동 운명을 인식하게 되면서 평화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구조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단 내에 존재하던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극복되고,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는 서로에게 확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단순히 더 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웃으로서 인도적으로 서로 도우며 협력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⁷⁷⁾ 이러한 상호협력 및 정체성 변화 가운데,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축되어 나가는 관계 구축의 과정·구조를 갖는다.

76) 김창근은 이런 통일학적 상상력을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의 ‘문제 푸는 방법 찾기’라는 단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풀기, 4학년 도덕의 ‘진정한 우정’ 단원의 경우에 적용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속에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성, 즉 공식은 인간관계 및 남북관계에도 적용되는 대화의 원칙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친구와 우정을 쌓아가는 일에서처럼, 남북관계에서도 상처의 치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실천적 통일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하나 될 미래를 위한 출발』 (고양: 인간사랑, 2007), 192~194쪽.

77)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468~469쪽.

3)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학은 북한 연구에서 한반도 갈등에 속한 남한 연구자의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으로 분명 가치 중립적 연구가 아니다. 또한 국가 안보 중심의 소극적 평화라는 고정된 평화의 가치와는 달리 계속해서 비판·성찰되고 연구해나가는 적극적인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적 시가의 기존 안보 정책 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어떤 비판적 과제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북한 연구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구갑우는 남한에서 기존의 평화 연구는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에서 ‘평화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했었다고 비판한다.⁷⁸⁾ 만일 남한과 북한에서 적극적 평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성찰되지 않는다면, 앞서 예로 들었던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마찬가지로 평화 연구의 정책 대안이 또 다른 폭력 질서의 정당화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에서 그 일차적 과제는 한반도 갈등 맥락에서 적극적 평화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일국 차원인 북한에서의 적극적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에서의 적극적 평화, 마지막으로 한반도 갈등 관련국 모두를 포함한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계속해서 함께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 평화학이 논하는 평화의 개념뿐만 아니라,

78) 위의 책, 438~439쪽.

북한에서의 평화에 대한 시각,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평화에 대한 시각, 그리고 관련국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평화에 대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연구의 차원에서 북한의 평화 개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갑우는 북한의 『조선말사전』, 『김일성 저작집』 등 공식 문헌을 통해 북한의 평화 담론을 연구하면서,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평화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착취계급의 평화’와 ‘계급사회가 없는 진정한 평화’이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 담론은 소극적 평화론 및 적극적 평화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적 당파성을 가지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비폭력을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와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구갑우는 이러한 북한의 평화 담론이 민주화된 남한과는 다른 권위주의적 체제의 특성상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⁷⁹⁾ 하지만 한반도 갈등 가운데 행위자들의 접촉면이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한동안 상당히 증가했었고, 물론 현재는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임을 가정할 때, 민주화 이후 계속해서 변화하는 남한의 평화 담론에 비해 북한의 평화 담론이 언제까지 고정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평화 담론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런 북한의 평화 담론 연구는 남한의 평화 담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의 평화

79)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96~98쪽. 한반도에서의 평화담론 연구는 구갑우의 연구 이외에도 김석근,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또는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등을 참조.

담론에 대한 연구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한의 연구자는 북한에 대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평화적 가치가 있는 평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평화 연구는 평화협정 체결, 또는 안보체제 구축을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평화 연구는 평화 조성, 평화 유지, 평화 구축이라는 시계열적 구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평화 구축이란 말도 평화협정을 통한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의 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의 일반 사람들 사이의 교류 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연구 조사도 여전히 제한된 상황인 가운데, 평화 연구도 대체로 미시적 쟁점보다는 일단 한반도 갈등의 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⁸⁰⁾ 따라서 북한 관련 평화 연구는 주로 정부의 협상이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학의 적극적 평화는 과정과 구조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또한 갈등의 전환과 평화 구축은 국가 간 협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평화에 정부 당국자의 역할만 강조하면, 앞서 레더라크도 지적했듯, 평화 구축에 있어 행위자 간의 상호 의존성의 격차, 정의의 격차, 과정·구조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⁸¹⁾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국가 간의 정치·군사 문제 외에 갈등 속의 다양한 갈등 집단 및

80) 한반도 갈등의 구조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파주: 한울, 2002) 참조.

81) 한반도에서 발생한 평화 구축의 격차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동진,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참조.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가진 기본적 욕구, 이익, 가치 등을 분석해 미시적 쟁점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버턴이 제기한 바와 같이 갈등과 폭력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사회규범 속에서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탈 행위라고 할 때, 한반도 갈등이라는 큰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억눌린 욕구, 이익, 가치에 대한 연구가 분명 필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 연구가 활성화되고 ‘아래로부터의 관점’의 연구 경향이 등장했다는 점은 평화 연구에 상당히 큰 시사점을 준다. 먼저 북한의 정치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민 없는 권력 구조론’을 극복하고 통치의 대상인 ‘인민’을 고려한 연구, 즉 권력관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찾아내서 위와 아래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연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연구 분야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분석하는 정치경제적 성격의 연구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진다.⁸²⁾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 연구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단순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 권력 구조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고를 벗어나 체제 순응 및 체제 이탈 행위의 공존 현상을 연구하는 북한 주민의 일상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⁸³⁾

이런 북한 연구들은 모두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구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충족될 수 없는 욕구, 이익, 가치들을 밝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은 이들 연구와 접목해,

82) 이우영·윤철기, “북한연구의 성과와 미래,” 10~11쪽.

83)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19~20쪽.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도 새로운 평화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한반도 평화 구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구는 평화협정, 안보체제, 또는 경제협력 등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한반도의 평화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과 포괄적 평화 구축 전략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평화학적 연구는 다양한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평화 구축 행위에 대해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들 행위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했다. 그간 한반도에서도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여러 평화 구축 시도들이 있었다. 만일 이러한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평화 구축은 기존의 냉전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당위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평화와 평화 구축 과정·구조를 실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갑우는 남북관계에서 볼 때,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통계 또는 제도화의 정도만으로 적극적 평화의 증진을 검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⁸⁴⁾ 특히 이러한 평가는 주로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남북 주민 간 도덕적 상상력의 공유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검증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의 통일 문제를 국가통합 및 체제통합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을 둔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남북 의식통합 조사를 주목해볼 만하다. 의식통합 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정치 분야는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에 대한

84)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413쪽.

긍정적 관계 인식, 상대방의 무력 도발 가능성 인식의 약화, 남북한 정치제도의 차이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 수준의 변인이 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남한의 경우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여도,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견해, 북한의 경우는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 수준, 대북 투자와 대북 사업에 대한 우호도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는 상대방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상대방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 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 사회 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⁸⁵⁾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제공하는 통일의식 조사도 계속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 조사는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등을 조사한다.⁸⁶⁾

물론 이들 조사들은 다양한 평화 구축 시도에 따른 개별적 성과를 측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도된 변화의 결과를 검증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 남북관계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조사들이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이는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 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 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

85)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89~2007』(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141~162쪽.

86) 통일의식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xe/sub710>) 참조.

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⁸⁷⁾ 결과적으로 이들 조사는 그 자체로 전략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 연구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학의 전략적 과제와 직접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북한 연구로는 최근 시도되는 남북 간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주목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평화 구축의 공간인 적십자회담,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접촉지대에서 남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마음체계의 미시적 통합에서 서로 다른 두 마음 체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호 마음체계를 연구하면서, 공식 담론이 은폐하거나 구조적 설명이 간과하는 행위자들의 일상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마음체계, 접촉지대 진입 전 서로에 대한 인식이 만드는 마음체계, 접촉지대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마음체계, 이렇게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런 연구가 계속 발전된다면, 정부의 평화 구축 시도뿐만 아니라 남한 민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 개발협력 사업,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각종 남북 및 국제 사회문화 교류 사업,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북 지원, 미국 NGO 등 관련국 민간의 대북 지원, 트랙 투 회의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평화 활동이 일으킨 변화에 대해, 그리고 이 활동들이 순환론적으로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의 전략적 평화 구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⁸⁸⁾

87)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4쪽.

88)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1~280쪽.

4. 나오며

한반도와 같이 갈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당위적이면서도 어쩌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갈등 지역에서의 평화 연구는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 주장이나 이상주의 운동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맥락에서 과연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화학적 접근은 먼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 즉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인해 억눌린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사회적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란 무엇인지를 재구성하면서, 평화를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평화학적 접근은 어떻게 하면 이들 행위자들의 평화가 모두 존중되는 창의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런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들 행위자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한에서 북한학이 없는 평화학은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시적 쟁점과 구조적 문제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주요 행위자이다. 한반도 갈등의 구조 속에서 북한은 분명 남한의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남한의 평화 연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당위적 연구에 머무를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여러 문제와 사회적 현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갈등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가치 중립적 연구는 오히려 한반도 갈등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는 특정 안보 연구에서와 같이 이미 고정된 가치를 가진 북한 연구의 왜곡 현상도 살펴보았다.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질문하는 평화학은 북한 연구에 있어 분명 비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평화학적 북한 연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평화의 조건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북한학이라는 지역학의 종합 학문적 특성과 평화학의 학제 간 연구라는 특성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진 북한 연구의 새로운 흐름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북한학이 가진 종합 학문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특징은 평화학이 가진 학제 간 연구의 흐름과도 접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학은 갈등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적극적 평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 평화 구축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국제관계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자연과학, 공학, 법학, 철학, 신학 등 매우 다양한 학문의 연구 방법과 이론을 활용하는 통합적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흐름의 북한학과 평화학의 학제 간 연구가 결합한다면 북한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를 좀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를 세워나가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평화 구축 연구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0월 16일 / 수정: 11월 25일 / 채택: 11월 30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서울: 후마니타스, 2008).
- _____,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89~2007』(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 노중선,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996).
-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과주: 한울, 2002).
-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요한 갈통(Johan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옮김(서울: 들녘, 200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존 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속가능한
한 평화구축을 위하여』, 김동진 옮김(서울: 후마니타스, 2012).

2) 논문

- 강성윤, “북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과주: 한울 1999).
-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과주: 한울, 2007).
- 구갑우,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남북한관계론』(과주: 한울, 2005).
- 김석근,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 김연철, “인식방법: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하나 될 미래를 위한 출발』(고양: 인간사랑, 2007).
-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과주: 한울, 1999).
-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2013).
-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2008).
-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의 회고와 전망,”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서울: 철학과현실사, 2010).
- 이우영·윤철기, “북한연구의 성찰과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회의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
-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정창현, “분단과 북(조선)을 보는 시각: 체제와 민족문제의 사이에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분단 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서울: 선인, 2009).
- 조대엽, “한반도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2010).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과주: 한울, 2003).
-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2011).

2. 국외 자료

1) 단행본

- Annan, Kofi A., *In Larger Freedom: Towar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New York: United Nations, 2005).
- Baylis, John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isher, Ronald. J., *Interactive Conflict Resolution*(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 Francis, Diana, *People, Peace and Power: Conflict Transformation in Action*(London: Pluto Press, 2002).
- Galtung, Johan, Carl G. Jacobse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en,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London: Pluto, 2002).
- Gourlay, Catriona, *EU-UN Cooperation in Peacebuilding: Partners in Practice?*(New York: United Nations, 2009).
- Gurr, Ted Robert, *Why Men Rebel*(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Jackson, Robert and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Kim, Samuel S.,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8).
- _____,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Preparing for Peace: Conflict Transformation Across Cultures*(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6).
- Miall, Hugh, Oliver Ramsbothan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transformation of deadly conflict*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9).
- Mills, C. Wright, *The Sociological Imagin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OECD,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s Series*(OECD Publishing, 2012).

Philpott, Daniel and Gerard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Oxford University Press, 2010).

Schirch, Lisa, *The Little Book of Strategic Peacebuilding: A vision and framework for peace with justice*(Good Books, 2004).

Tidwell, Alan C., *Conflict Resolved? A Critical Assessment of Conflict Resolution* (London: Pinter, 1998).

Tillett, Gregory, *Resolving Conflict: A Practical Approach*(Oxford University Press, 1999).

Tschirgi, Necla, *Peacebuilding as the Link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Is the Window of Opportunity Closing?*(New York: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003).

Zelizer, Craig(ed.), *Integrated Peacebuilding: 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ing Conflict*(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13).

2) 논문

Barash, David P., “The Meaning of Peace,” in *Introduction to Peace Studie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91).

Boutros-Ghali, Boutros,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A/47/277-S/24111. 17 June 1992,” in *Agenda for Peace*(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5).

Bueger, Christian, “The clash of practice: political controversy and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The Policy Press, 2011).

Burton, John W., “Human Needs Theory,” in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London: Macmillan, 1990).

- Finnemore, Martha, "Paradoxe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Richard M. Price(ed.), *Moral Limit and Possibil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Fisher, Ronald. J., "John Burton: Controlled Communication to Analytic Problem Solving," in *Interactive Conflict Resolution*(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7).
- Galtung, Johan, "Cultural violence," i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Oslo/London: PRIO/Sage Publication, 1996).
- _____, "Violence and Peace," in Smoker, P., Davies, R. and Munske, B.(eds), *A Reader in Peace Studies*(London: Pergamon Press, 1990).
- _____,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6).
- _____, "Peace," in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5).
- _____,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in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5).
- Jeong, Ho-Won, "Concepts of Peace and Violence,"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An Introduction*(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1999).
- Lederach, John Paul, "Justpeace," in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People Building Peace*(Utrecht: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1999).
- Paffenholz, Thania and Christoph Spurk, "Civil Society, Civic Engagement, and Peacebuilding," *Social Development Papers, Conflict Prevention & Reconstruction*, The World Bank Paper No. 36(2006).
- Stephenson, Carolyn M., "Peace Studies, Overview," in *The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 2(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9).
- Zelizer, Craig and Valerie Oliphant, "Introduction to Integrated Peacebuilding," in Craig Zelizer(ed.), *Integrated Peacebuilding: 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ing Conflict*(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13).

2) 기타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Positive Peace Index*.

UN Document S/2001/138, 14 February 2001.

A Peace Studies Approach to North Korean Studies

Kim Dongjin(the Peace Culture Institute in Korea)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eal motivation for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can be purely academic, rather than political or ideological. It seems questions of objectivity cannot be divorced from issues concerning the research on North Korea due to the protracted history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s are still officially at war. The term, North Korea, itself, reflects the realities of the Korean conflict. However,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North Korean studies. Even though several social science research projects, conducted in conflict affected societies, have been declared to be value-free, the values and assumptions of the researchers tended to be hidden in their work, whether consciously or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peace studies approach to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Peace researchers

claim that efforts to reach perfect objectivity are almost always doomed to failure in the context of violent conflicts and could only justify the existing valuation of violence. Instead, they suggest a critical approach, which is clearly value explicit with a positive valuation of peace. Peace studies examine not only the subject, but also the meaning of peace for the subject. In doing so, it embraces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and seeks inter-disciplinary studies,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psychology, economics, education, anthropology, law, theology, technology and natural sci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Peace Studies approach can be useful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 as a research subject an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peacebuilding strategies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peace studies, North Korean studies,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Korean conflict, negative peace, positive peac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